

“스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불교평론〉 가을호서
무산 대종사 추모 특집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작은 이익 때문에 얼굴을 돌리는 이웃들에게 조차 미완의 여래(如來)를 읽던 ‘중’이었다. 두 두물물(頭頭物物)에서 절대적 가치를 찾아내던 무산당 그가 그립다.”

지난 5월 26일 원적에 들은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를 그리는 평생 도반 정휴 스님(강원 화암사 영은암 암주)의 글이다.

무산 대종사가 생전 발간했던 불교계 유일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최근 발간한 가을호에서 ‘설악무산 스님, 그 흔적과 기억’을 주제로 추모 특집을 실었다.

추모특집에는 정휴 스님(화암사 영은암 암주)·성우 스님(BTN불교TV 회장)·우송 스님(신흥사 주지) 등 도반과 후학을 비롯해 이근배(예술원 회원)·권오민(문학평론가)·최정희(본지 前 편집이사)·신달자 시인 등 18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무산 대종사와의 추억담을 쏟아냈다.

스님과 각계 인사들이 풀어놓은 추억 이야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산 대종사의 면면들이 담겨져 있다.

대종사 열반 당시 호상을 맡았던 도반 정휴 스님은 무산 대종사와의 첫 만남부터 평생 도반이 된 이야기를 술회했다. 무산 대종사가 주석했던 금무산 약수암에서 목도한 천진하고 소탈한 모습부터 자신에게 어려운 부탁을 청했던 것까지 절절한 반세기의 인연담은 대종사가 정휴 스님에게 건넨 일구(一句)로 정리된다. “우리는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이다.”

정휴·성우 스님 등 도반부터
정치·문학·언론계 인사들까지
무산 대종사와의 추억담 소개

정휴 스님 “우린 한산과 습득”
칼이 들어와도 담담했던 장부

중국 당나라 시대 선승인 한산과 습득은 기행으로 유명한 수행자였으며, 돈독한 우의를 나눈 지음(知音)이기도 했다. 무산과 정휴, 두 스님의 평생 도반의 길은 이때부터 이뤄졌을지 모른다.

같은 시조시인으로 문학적 동지였던 성우 스님은 담대했던 무산 대종사의 일화를 소개했다. 청도 신둔사의 객실에 하룻밤 머물렀던 두 스님은 취침 중 강도를 맞이하게 됐다. 당시 강도는 두 스님에게 칼을 들이대고 “가진 것을 내놓아라”고 협박했고, 성우 스님은 걸망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무산 대종사는 달랐다. 가진 것이 없으니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라고 배짱을 부렸고, 결국 강도는 눈만 부라리고 나갔다. 강도가 나가자 무산 대종사는 성우 스님에게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할라고 강도에게 다 바치냐”고 한 마디를 던졌다.

이에 대해 성우 스님은 “‘이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기만의 길을 갈 사람’임을 그때 알았어야 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신흥사 주지로서 무산 대종사를 모셨던 우송 스님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봉행됐던 설악산문 현판 제막법회에서 자신에게 전한 대종사의 말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무산 대종사는 우송 스님에게 “나는 이제 설악산에 와선 할 일을 다했다. 혹시 훗날 문도들 사이에 시빗거리가 생기면 이 현판을 한 번 쳐다보아라. 그러면 나의 뜻을 알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희 본지 前 편집이사는 1984년 〈불교신문〉 재직 당시 주필 겸 편집국장이었던 무산 대종사와의 인연을 풀어놓았다. 그리고 대종사를 “이산교연 선사의 발원문처럼 약풀이 되고 쌀이 되어 이웃을 돕고 나누었던 분”이라고 회고하며 “행원(行願)의 삶이면서 바람처럼 걸림없는 삶이었다. 그 이타행은 ‘머문 바 없이 내는 마음(應無所住而生其心)의 자비’였다”고 상찬했다.

가톨릭문인회장까지 지낸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신달자 시인과 무산 대종사의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2001년 남편을 떠나 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신 시인은 수서역 주변 포장마차에서 술을 자주 마셨고, 이를 토대로 ‘저 거리의 암자’라는 시를 세상에 내놓았다. 우여곡절 끝에 대종사를 친견하기 위해 동안거 해제법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대종사는 젊은 납자들에게 ‘여러분이 3개월 수행한 것보다 이 시 한편이 더 불경에 가깝다’고 신 시인의 시를 소개했다. 신 시인은 “그 무렵 나는 시가 잘되지 않아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 터에 스님의 한 마디는 큰 힘이고 위로였다”고 술회했다. 이를 통해 신 시인은 대종사에게 ‘남암(南庵, 이조 혜가가 달마를 찾아가기 전 수행하던 토굴)’이라는 법호를 받기도 했다.

문학평론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는 백담사에서 대종사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다. ‘문학평론가’라는 자신의 소개에 대종사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언어의 그물질”이 평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평론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놓은 방법론으로 다른 사람이 쓴 작품을 왈가왈부 시시비비만 하지요. 그러니 허망할 수밖에”라고 한 마디를 더 했다. 당시를 권 교수는 “마치 크게 한 번 ‘할방’이라도 당한 듯한 느낌”이라고 술회했다.

붓다가 설파한 가르침은 ‘中道 철학’

주목 학술서- 이중표 교수의 ‘붓다의 철학’

혹자는 묻는다. 불교는 종교인지 철학인지를. 그럴 것이 불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절대자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이를 쫓는 과정인 구도·수행에 불교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훈인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에서도 잘 드러난다. 법을 의지처(등불)로 삼아 정진하라는 이 유훈 아래에는 끊임없는 성찰과 사유에 대한 당부가 담겨져 있다.

불교학자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최근 발간한 〈붓다의 철학〉은 붓다가 깨닫고 증명한 진리 안에서 철학적 제 문제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또한 인식·존재·가치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입증한다.

〈붓다의 철학〉은 이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저서인 〈아함의 중도체계〉의 개정증보판이다. 27년 전 난해한 국한문 혼용의 한문경전 번역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알기 쉬운 현대어 번역과 치밀한 논리로 붓다의 중도 사상을 밝힌 〈아함의 중도체계〉는 발간 이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불교학 분야의 스테디셀러였다.

이를 개정 증보한 〈붓다의 철학〉은 저자의 평생 연구 성과를 담아 초기불교경전 원전 해석의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이 책은 중도 해설을 중심으로 무엇이 진리이며 그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지에 관한 ‘인식론’, 12연기를 바탕으로 한 ‘존재론’, 4성제를 토대로 실천의 당위성을 논하는 ‘가치론’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진리의 접근법인 인식론은 연기설과 9차제정(九次第定)으로 설명하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하는 존재론은 5온(五蘊)·12처(十二處)·18계(十八界)로 풀이했다. 그리고 마땅히 실현해야 할 가치에 관해 탐구하는 가치론은 4성제를 기반으로 해석했다. 이 같은 범주 나눔은 서양철학적 조명 방식이지만 이는 어디까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이다.



논문 ‘아함의 중도체계 연구’
27년 만에 개정 증보판 펴내

모순된 명제 떠난 철학 ‘중도’
4성제·8정도·12연기 등 포함

붓다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세상의 존재가 ‘허상(虛像)’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붓다의 철학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분별심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붓다의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은 카테고리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로 회통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 진리의 인지를 위해 붓다는 실천 수행체계를 제시했고, 각 수행 단계마다 향상되는 인식 과정을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설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모순의 해결을 포기한 것은 중도가 아님을 역설한다. “모순된 명제를 떠나 철학하는 방법”이 바로 ‘중도’라는 것이다.

저자는 “중도에서 보면 모든 모순이 착각이고 환상”이라며 “붓다의 침묵은 사견(邪見)을 파기하고 중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중도라는 철학적 입장에서 취해진 것이며, 붓다의 철학을 우리는 ‘중도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명진관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13일 등록예고… 부산 대통령 관저 사적 예고

동국대 석조전(이하 명진관·사진)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9월 13일 동국대 명진관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 또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에 문화재 등록 예고된 ‘동국대 명진관’은 1958년 건립됐으며,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한 건축가 중 한 사람인 송민구가 설계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고딕풍 건물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구성과 석재로 마감한 외관 등은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수도의 기능을 수행했던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또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3건의 등록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와 문화재 등록 예고한 ‘동국대 명진관’, ‘충남대 구 문리과대학’은 30일간의 지정·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찰로 명당! 도성속의 숲속

2015년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주 변 : 500m 內 서울항동지구, 부천옥길지구, 현대아파트 단지 등 22,000세대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1, 서울 경계 115m
- 대지 158평, 건물 93평, 사유지처럼 쓰는 땅 400평 이상
- 양도가액 : 35억

연락처 : 010-4500-909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